

## 생산성 및 원가구조개선, 경쟁력 확보 고급형 자동타대기 개발, 대통령표창 수상



김진철  
(주)디에스아이 대표이사

제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할 때 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P.P. STRAP으로 단단하게 결속하는 자동타대기는 주로 서적류, 농수산물, 가전제품 등의 공산물, 각종 수출포장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제품이다.

2003년 우수자본재 개발 유공자 포상에서 고급형 자동타대기 개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진철 (주)디에스아이 대표이사를 만나 제품 특징 및 경영 노하우에 대한 견해를 들어 보았다.

“훌륭한 업체가 많은데 대통령 표창을 받게 돼 무척이나 기쁩니다. 특히 여타 자본재 중에서 포장기계로 수상하게 되어 포장기자재 산업종사자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철 사장은 “격려해주신 포장인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향후 포장업계 위상제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업계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97년 1월을 시작으로 2년 4개월간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개발된 고급형 자동타대기(Auto Strapping Machine)는 자본재 산업 전략품목으로서 세계적인 추세인 다기능화와 고급화를 추구하고, 해외시장에서 기술, 품질, 가격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개발착수된 제품이다.

(주)디에스아이 자동타대기는 속도를 30% 가량 향상, 분당 30회 결속이 가능하며 strap 자동장착기능인 One touch feeding, 밴드불량검출장치, Loop ejector 등의 다

## “중국현지공장 활성화 통해 시장 선점”

양한 기능과 안전장치를 보유했다. 또한 전자 텐션 장치, Digital Display를 채택, 신뢰성과 제품의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

포장관련 공장자동화에 대한 관심으로 포장업체에 뛰어들었다는 김진철 사장은 세계 제일의 포장결속기 전문 업체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으로 포장 결속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단기 미래에 대한 상황을 예측하면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시장 선두로 나서기 위해 끊임없이 품질향상에 주력했습니다.”

그동안 김 사장은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영업력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2000년 무역의 날 국무총리 표창, 5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디에스아이의 위상을 입증받게 된다.

김진철 사장은 고급형 자동타대기를 통해 2003년을 기준으로 매년 100% 신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도 급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급형 자동타대기를 기본으로 기능과 디자인을 보완한 후속 모델의 개발이 이어져 기술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러 검출 장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제어기술은 자동화기계 등 산업기계 전반에 널리 활용이 가능하며, 원터치 피딩 등의 기술은 끈, 실 등을 재료로

하는 각종 기계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김 사장은 기술표준원과의 공동개발에 의해 탄생한 이번 제품에 의해 시험규격, 방법 등 제반 부대 기술력의 향상과 공동개발시스템의 정착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철 사장은 “포장은 여러 기자재가 서로 연관되어 적용되는 산업인만큼 업계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품 시장 정보의 공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으로 김진철 사장은 제품 품질을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격, 품질, 기능 모든 측면에서 최고 경쟁력을 확보,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기능 경제성의 신제품 “레인보우”를 세계 전지역에 동시에 출시, 단시간에 점유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며 지난 3년간 가동해 온 중국현지공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 향후 2~3년 내 시장점유율 선점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궁극적인 경영 목표는 고객만족, 주주만족, 사원 만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김진철 대표이사.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확보하고 원가구조개선을 통해 시장 선도를 계획하고 있는 그의 행보를 주목해 본다. [KQ]

박초혜 기자